

시진핑의 고민... 북송 원유 끊을까 말까

대북 추가 제재 결의 속도
北 의리나 美 성의 표시나
11일 안보리 표결 분수령

북한의 3일 핵실험 단행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제재 결의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된 원유공급 중단 문제에 대해 중국의 태도가 주목된다.

북한의 핵실험이 확인된 당일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강경 입장을 비치면서도, 같은 날 관영매체를 통해선 북한에의 원유 급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날렸으나 이와 관련해 중국이 전면 중단이 아닌 감량 공급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한 기색이 엿보인다.

11일로 예정된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표결을 앞두고, 미국 등이 대북 원유 급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대해 중국이 ‘성의’ 표시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원유 공급을 전격 중단하게 되면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위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중국 내에서 일고 있다. 경성(敬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관련 중국의 이해득실

중단	VS	현 상태 유지
북한 정권 붕괴 우려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위협 자국 내 북한 비난 여론

브리핑에서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회원국의 토론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보도 통제를 하면서도,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4일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과 인접한 서해의 발해만에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무력시위를 했다. 이 훈련을

두고 중국 내 관변 학자들도 “평양에 경고하려는 의도”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중국 당국의 속내를 드러냈다.

외교활동을 사실상 기밀로 여기며 공개를 꺼려온 중국 당국이 북한 핵실험 직후 주중 북한대사관 책임자를 소환했다고 밝혔으며, 지재룡 주중 대사를 소환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북한 ‘망신주기’ 차원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다음달 18일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를 앞두고 대내외에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려던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 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 개막식 직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데 중국 여론은 끓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 통화와 관련해 “왕 부장과 통화했을 때 안보리 추가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면서 “중국도 상당히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감지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량을 정확하게 공개한 적이 없지만, 90% 이상이라는 얘기는 정설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각종 자료를 인용해 2015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은 53만t이고, 21만8087t의 석유제품을 공급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 전문가들 대다수는 북한에의 원유공급 중단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비치고 있으나 며칠새 ‘일부 중단’ 또는 ‘상한선 설정’ 방식에 중국이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강기정의 독일이야기

⑦ 독일경제 지키는 히든챔피언



HB, 2B, 4B 등 우리가 쓰는 연필에 적힌 강도 H와 진하기 B의 등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연필의 표준길이 18cm는 또 누가 정했을까. 뉘른베르크에 자리한 독일의 세계적인 연필회사 파버카스텔이다. 동화 속 예쁜 성 같은 공장에 들어서면서 빈센트 반 고흐, 헤르만 헤세 등이 사랑했다는 이 필기구의 제조과정이 너무나 궁금하다.

필자를 맞아준 이는 4명의 경영진 가운데 한분인 로프 슈 피렌츠(Rolf Schifferens)씨. 그의 말에 의하면 파버카스텔은 9대째 이어진 250년 역사를 갖고 있다. 1761년에는 수공으로 연필을 100자루 정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하루에 50만 개, 연간 20억 자루의 필기구를 생산한다. 목재를 많이 쓰는 회사다보니 파버카스텔 경영 원칙의 첫 번째는 친환경이라고 했다.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납품을 할 때 가격 후려치기 등의 부당요구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종종 당하는 일이라고 한다.

대기업과 상생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독일의 중소기업은 평균 7%를 R&D에 투자를 한다. 이를 통한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 독일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주역이 됐다.

파버카스텔 연필공장을 방문하면서 작은 공금중 하나, 연필 한 가운데 나무기둥에 어떻게 핵심을 넣을까? 하는 것이었다. 답은 명쾌했다. 핵심을 가운데 두고 두 조각의 나무를 붙이는 것이다. 연필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나무를 붙이는 기술이 핵심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 간단한 진리를 보고서 그래! 늘 중심이 먼저야, 하는

중소, 기술력 하나로 세계적 성장 가능

대규모 숲 조성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량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어나가고 있다. 또 전문성과 전통, 고품질을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구조조정은 안했다고 한다. 숙련된 기술자들을 잃지 않으려한 때문이다. 그는 “정사가 잘 될 때 돈을 모으고, 어려울 때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해왔다고 한다. 다른 어떤 말보다 250년 동안 소멸되지 않고 성장을 거듭해왔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고유의 기술을 가진 작은 기업이 기술력 하나로 세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바탕이 갖춰진 나라, 독일 중소기업의 전형적 사례다.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한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갖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온은 독일이 1307개, 전 세계 중소기업의 48%를 차지한다. 대체 왜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메바스도에서 만난 위르겐 레이머 이사 그가 답을 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은 가족기업이지만 경영 전문인이 운영을 하며 설립자의 손자가 대변인으로 활동할 뿐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와 나는 대화 가운데 빼어놓을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다. 그는 1956년부터 벤츠 등 대기업에 스틸 천루프를 공급하고 있고 폭스바겐, 포드에 히터를 납품하고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렇다면 히든챔피온과 같은 중소기업 성장의 중심은 필가? 그 중심은 역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을 맡고,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서는 것이 시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야 일자리 문제의 답도 나온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월드클래스300을 선정해왔다. 2016년 월드클래스 기업은 전국에 266개, 이 가운데 광주에 있는 기업은 4개뿐이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척박한 현실이 실감나는 숫자다. 오이솔루션, 남도금형, 성일노테크와 지오씨 등 지역 강소기업을 매주 방문하고 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 그 중심을 깊이 고민하려 한다.

* <강기정의 독일이야기>는 정치인 강기정이 12년의 의정활동을 잠시 멈추고 베를린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 of Berlin)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머물며 기록한 독일의 industry4.0. 에너지, 경제, 정치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총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연재됩니다.

“한미FTA 폐기 아니라 개정 협상 희망”

美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사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현대화”와 관련한 2차 협상을 마무리한 이날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FTA가 종료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있다”며 “한국과 성공적인 논의를 하고 우리 관점에서 보는 그 협정의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개정 협상’ 언급은 지난 2일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다음 주부터 논의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는 다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뒤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한미 동맹의 결속을 해치는 FTA 폐기에 반대한다는 미 조야의 여론이 비등해졌다. 미 의회 내 무역협정의 소관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 소속 여야 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 “북한의 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동맹의 필수적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한미 FTA 개선을 위한 논의는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공화당 소속 케빈 브레이디 하원 세입위 의장과 오리 해지 상원 재무부의 의장, 민주당 중진 리처드 닐(매사추세츠)·론 와이든(오리건) 상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콘벨트’ 아이오와 주 지역구인 공화당 조니 에니스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폐기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300만개 이상의 미국 업체를 대표하는 미국상공회의소의 톰 도너휴 회장이 성명을 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한미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허리케인 ‘어마’에 사재기 바람 미국 플로리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허리케인 ‘어마’가 최고 풍속이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최고등급(5등급)으로 발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주민들이 매장으로 몰려와 비상식량을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안 숙박시설(모텔) 매매·임대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 매매가 9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즉시임대가능★

직매 010-7384-7800

영광주택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개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

010-6670-9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 1) 상무지구 치평동 상가 1층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천
- 2) 동구 금남로 총창로 코너(15층 상가건물)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75억(특A급)
- 3) 북구 삼각동 상가건물 (4층)
병원, 요양병원 적합
감정가 189억 → 최저가 85억
- 4) 상무지구 치평동 지하상가 (교회, 기타적합)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 5) 상무지구 치평동 4층 상가코너 (병원)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0억5천
- 6)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 → 최저가 17억
- 7) 충남 홍성 상가건물 (주유소, 모텔, 식당중합건물)
감정가 55억 → 최저가 13억

특수물건, 절반물건, 상가, 토지, NPL전문

경매교육

매주 월요일 개강
기초부터 실전까지
062-382-5500